

민관협력 악취저감 1단계 성공

익산시, 우수 공무원 표창·민간인 감사패 수여... 2단계 축산악취정책 추진

익산시가 민관협력으로 악취저감 1단계인 도심 주거지 산단악취 집중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악취행정 민관커버넌스 운영과 체계적인 악취저감 정책 수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25명의 민간인과 3명의 공무원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순문선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위원과 익

산상공회이소, 국도화학(주)익산공장, 신정(주) 및 정민농장, 베리굿팜, 명승양계장 등 축산농가 3곳이다.

또한 선진 악취저감 행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환경관리과 한제인계장, 서흥식주무관 축산과 오은영 주무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악취 집중행정을 통해 작년 동기 대비 악취민원이 53.7%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산업단지 화학약품 냄새 민원은 무려 67.7%가 감소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강화된 2단계 악취저감 정책을 수립해 축산·산단악취 집중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악취행정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과거에 비해 악취가 많이 저감되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 유공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환경친화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28일 오후 2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에서 우수기

“군산 가치 상승과 자긍심 고취”

군산시,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는 28일 오후 2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인적자원을 능력중심으로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7년 최초 인증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패 수여, 대외 홍보 시 인증 로고 활용,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 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직진단을 통한 맞춤형 개인 역량 진단평가 체계 구축 등 조직역량 개발, 중장기 교육훈련 체계 수립 및 직원 희망 부서제 추진 개인 업적과 능력에 기반한 승진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심사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군산시의 가치 상승과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각 분야에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시 이후로도 바쁘다.

/군산=김판곤 기자

얼큰 · 확끈... 2022년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

10월 8-9일 장미동 일일행사



제2회 군산짬뽕페스티벌이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군산시 동령길(장미동) 일원 짬뽕특화거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짬뽕특화거리를 거리축제장으로 조성, 지역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짬뽕먹기·각종체험,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려한 흥겨운 가락을 조성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어릴적 짬뽕을 먹던 추억소환, 시간여행 속으로 젓어들게 진행한다.

축제 기간동안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짬뽕푸드파이터, △세계 이색짬뽕 체험, △짬뽕 쿠팡캐스트, △군산 집짬뽕 빠르게 먹기 등이 기획됐으

며, 빈 점포를 이용해 군산짬뽕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홍보 전시관도 운영한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및 SNS의 해시태그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유도하고, '짬뽕의 도시 얼큰, 화끈, 개운한 축제'의 슬로건에 맞게 운영해, 군산짬뽕의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문다혜 위생행정과장은 "처음 대면으로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군산짬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여성농업인 영농폐자재 하반기 집중수거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는 지난 28일 27일 양일간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했다.

연합회는 올해로 17년째 영농폐기물을 공동수거해 지속 가능한 농촌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의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12개 읍면동 연합회원 642명은 읍면별로 공동 수거팀을 구성해 회원들의 차량을 이용, 시설하수나 축산농가의 영농폐자재나 들녘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을 수거 보관하다가 수거기간에 농업기술센터 임시 집하장으로 모아진다.

올해 상, 하반기 160여톤을 수거했으며 해마다 그 양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수거기간 수거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수나 토양발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에 전량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용 폐자재는 소각하거나 매립 할 경우 농지와 하천 등 주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 NO 플라스틱! 생활실현을 위해 연합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천연수제미를 시민들과 나누고 동참하는 캠페인도 실시 할 예정이다.

연합회 라영심 회장은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관내 농업인들과 12개 읍면동 연합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농업인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는 폐자재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용 폐자재는 소각하거나 매립 할 경우 농지와 하천 등 주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 예약제 운영



익산보석박물관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이노키즈월드(실내)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예약은 익산보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4일 9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서비스 도입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해져 다이노키즈월드 매표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예약은 예약 당일 기준 다음 날부터 14일간 가능하다. 즉 10월 4일 온라인 예약 가능 날짜는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온라인 예약은 PC 및 모바일을 통해 보석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익산시민으로 예약 시에는 이용료 50%를 감면한다. 단 익산시민으로 예약 시에는 시설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놀이시설 종류로는 암벽등반시설 '스카이 트레일 및 타이스' 서비스별 게임 레이저태그, '트렘폴린 점프' 4종류이며, 어린이부터 성인 모두 체험이 가능하고, 1회에 50분간 체험할 수 있다.

관광형 보석박물관장은 "다이노키즈월드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중기부 표창 수상

군산시가 지난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대상자 공고'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시는 그동안 전북 최초의 상권네상스사업, 명산지장과 역전시장 이케이드 사업, 대야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여러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의 적극적 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장관 표창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통시장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과 전통시장 연계 행사 및 친환경생선조각 등 타 부처사업과 협력해 성과를 내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석공예 명장, 전국 기능경기대회 3명 입상

익산시 석공예 명장들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휩쓸었다.

시는 경상남도에서 펼쳐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석공예 명장들이 참가해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명장들은 석공예 분야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했으며 2위 강길남, 3위 박성욱, 장려상 김홍제 등이 수상했다.

이에 따라 정현을 시장은 28일 석재의 고장인 익산의 위상을 높여 준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57회 전국기능경기 대회는 석공예, 산업용로봇, 건축설계/CAD 등 53개 직종에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여 기술을 겨루는 대회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개최됐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석재산업이 발달했으며 아사탈을 비롯한 석공예 명장을 지속적으로 배출한 고장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